꼭지명 : 월요 철강 시황 리포트 (19.10.28)

1. 주간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철강 시황 '고단저장(高短低長)'을 극복해야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 (국내) 유통 가격 약세 등 전반적 약세 움직임
(중국) 국경절 이후 약세 기조 지속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철강 가격 상승 전망 관련 긍정적 팩트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 세계 철강업계 글로벌철강포럼(GFSEC) 연장 공동성명…중국 불참
5. 금주의 자료 : 1) 2020년 미국 경제 전망과 5대 이슈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19.10.18)
2) 주요 신흥국 경제 전망에 대한 해외 시각 (출처 : 국제금융센터, 19.10.23)
3) 일본의 '근로시간 제도 개혁' 동향과 시사점 (출처 : 대한상의 브리프&인포, 19.10.28)
4) 성장률 1%대 가능성 상승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19.10.24)

1. 주간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철강 시황 '高短低長'을 극복해야

오랜 시간 약세를 보였던 철강 시황의 전환 가능성이 가시화 되고 있다.

동남아 시장에서 톤당 420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던 열연강판(코일) 가격은 급속한 하락에 대한 반등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저점에 도달했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다.

통상 철강재 가격을 선행하는 철스크랩(고철) 가격 동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산 오퍼는 지난주부터 본격 강세를 보이고 있다. 터키로의 수출 성약 가격이 10달러 이상 올라갔으며 아시아향 오퍼가격은 톤당 260달러(HMS No.1 기준) 이상으로 10월 초 현대제철의 성약가격 244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일본산 고철도 8월말 이후 하락세가 10월 11일 수출 입찰에서 하락세가 멈췄다. 최근 일본 공급사들은 종전보다 톤당 2천엔 정도 높은 2만4천엔에 오퍼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철광석 등 원료 가격 인상 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점차 조선사 등 대형 실수요가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반영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국내에서는 워낙 경제성장률 둔화와 철강 수요 전반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가격 상승 전환에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철강 가격 움직임이 10월초 국경절 연휴 이후 약세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아직 본격 상승 국면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가능케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가격 상승 전환을 예측케 하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철강사들의 원가 압박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중국 내 열연 가격은 420~430달러로 적자를 오가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는 중국 내 유통 재고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스틸에 따르면 10월 25일 유통재고는 594만톤으로 올해 1월 490만톤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8월 924만톤에 비해서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해 보면 중국 내 철강재 가격은 당분간 보합 수준을 보이다가 연말연초를 기점으로 본격 상승 전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현재 상황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11월부터 연말 사이가 철강 시황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역별로는 다소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늦어도 12월 이후 가격 상승 전환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국내 철강 시황 특성을 읽을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고단저장(高短低長)이 그것이다. "강세 장은 짧고 약세 장은 길다", "강세는 약한 반면 약세는 강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경제 전반의 활기가 부족하고 철강 수요 둔화가 지속되면서 이런 철강 시황 움직임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여기에다 철강산업 내부 및 수요산업과의 생태계 취약성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

다. 수요가들은 예전보다 더욱 가격에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수요공급자 간의 신뢰가 낮은 탓이다.

결국 국내 철강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시장 분위기로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 문제도 해결은 일본 철강시장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그들 철강사와 수요가 간의 높은 신뢰성을 부러워하고, 관행으로만 치부해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은 없을 것이다.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철광석·원료탄…수급 요인으로 철광석 강세 · 원료탄 하향 전망
철스크랩(고철) 미국산 오퍼가 상승 전환 등 상승 기류 확산
철강재…(국내) 유통 가격 약세 등 전반적 약세 움직임
(중국) 국경절 이후 약세 기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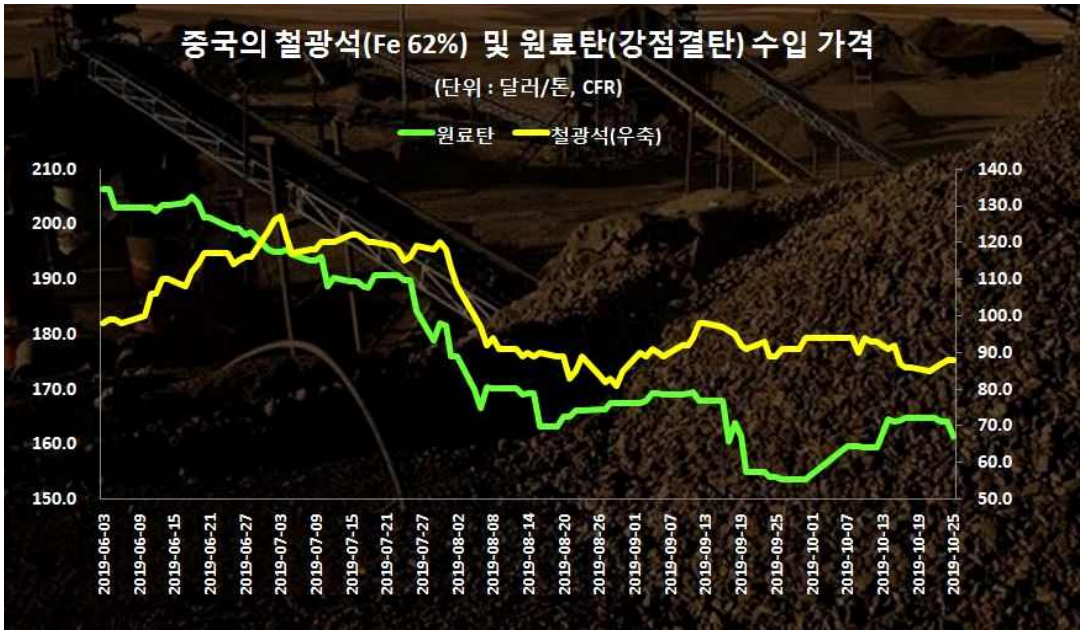
◆ 철광석·원료탄 (철광석 강세…원료탄 하향 전망)

1. 철광석 : 4분기~내년 상반기 '강세'…내년 하반기 '약세'

- 철광석 가격은 현재를 저점으로 판단, 4분기 평균 95달러 전망
  (현재 : 중국 Fe 62% 기준, 21일 85달러 저점으로 25일 88달러까지 소폭 상승세)
- 2020년 상반기까지 강세
  *. 배경 : 타이트한 수급 (브라질 발레가 생산 회복중이나 정상화는 아직)
- 2020년 하반기 약세 : 연 평균 85달러 예측
- 올해 1월~10/25일까지 94.3달러

2. 원료탄(강점결탄) 하향 전망

- 강점결탄 기준, 4분기 160달러 예상
  *. 배경 : 계절적 리스크, 호주 사이클론 시기를 대비, 사전 재고 확보를 위한 생산 증가
- 2020년 올해보다 하락한 175달러 전망
  *. 배경 : 글로벌 경기둔화 수요 위축 vs 공급 증가
- 올해 1월~10/25일까지 평균 191.7달러



◆ 포스코 24일 컨퍼런스콜 내용 요약

*. 중국의 겨울철 감산

- 감산기간 : 2019년 10월1일부터 2020년 3월 말 '6개월'
- 감산기준 : 오염치 규제 A B C 등급별 : A 감산 없음, C 50% 감산
- 평가 : 지난해 30~50% 일괄 감산에서 강도가 약화
- 영향 : 중국은 전 세계 55%의 생산을 차지. 올해 조강량 10억톤 돌파.

→ 겨울철 수요는 둔화되고 감산은 완화 : 가격 약세로 영향

*. 철강재 시장

환경

- 공급측면 : 중국의 공급과잉, 인도/러시아 등 저가공세
- 수요산업 : 중국/인도/멕시코 등 자동차산업 부진 수요약세

포스코 가격조정 현황

- 자동차/조선/가전 상반기 동결
- 하반기 : 조선은 7~8만원 인상안에서 소폭 인상으로 마무리 협의중.
  자동차/가전은 동결 내지 소폭 인상에서 마무리.
  냉연/강관사/유통 등 월별 고객은 국제 시황 여건을 반영해서 대응하고 있음

→ 예상 : 중국시황이 1,2개월 뒤에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길게는 12월까지 하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여름철부터 일정 수준의 인하조정이 이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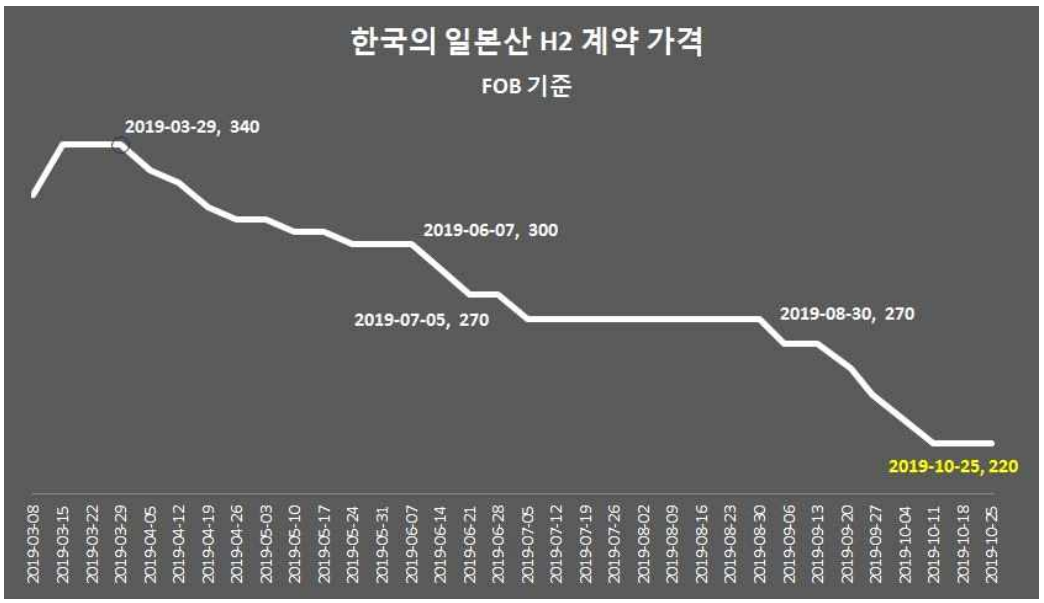
◆ 철스크랩 : 상승기류

1. 현대제철 일본 고철 계약 가격 '하락세 정지'

- 현대제철 25일 일본산 H2 FOB 2만2000엔 제시
- 10월 11일 입찰과 동가 제시
- 8월 말 2만7000엔에서 9~10월 매주 인하 지속에서 최근 동결

*. 평가> 미국 공급사들의 가격 인상 '드라이브' 동남아 시장 뒷받침 등 상승기류
동남아는 특히 비교적 낮은 가격의 일본산 구매 증가.
일본 공급사들이 장기간 하락에서 바닥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현대제철 이번 입찰에서 일본 공급사 상당수가 오퍼를 'Skip'. 최고 2만4000엔까지 오퍼가 나왔던 것으로 파악.



2. 미국의 오퍼 가격 뚜렷한 상승

- 미국 동부지역의 터키향 수출 성약 가격은 HMS No.1&2(8:2) 245달러, 10달러 이상 상승
- 서부지역의 아시아향 대형모선 오퍼 가격은 260달러 이상

* 현대제철 이달 초 244달러 성약

3. 국내 고철 물동량 위축...재고운영 불가능 상태 속출

- 전기로 제강사는 9월부터 현재까지 일주일 내지 10일 간격으로 계속 인하
- 하락폭은 6만원 이상. 매주 하락으로 매집 불가능 상태
- 고철업계에서는 전기로 제강사들이 고의 혹은 암묵적 합의에 따라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

* 고철업계는 제강사들이 원가부담을 이유로, 철근과 형강 가격을 유지 혹은 인상(형강)하면서도 고철 납품 가격을 인하로만 일관하는 데 불만이 큼.
* 공정거래위원회,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밝히기 쉽지 않음.
: 인하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 대상.

※ 글로벌 철스크랩 가격 현황

S&P Global Platts Asia Scrap Heards (25 Oct)

Deals
+ Bulk/ JP/ H1:H2/ $260/ CFR TW/ 3kt (thu)
+ Bulk/ JP/ H1:H2/ $255/ CFR TW/ 3kt (wed)
+ Bulk/ Philippines/ 70:30/ $251.3/ CFR s.VN (tue)
+ Cont/ US/ 80:20/ $240/ CFR TW/ 2kt (thu)
+ Cont/ Aus/ 80:20/ $235/ CFR TW/ 3kt (thu)
+ Cont/ US/ 80:20/ $238/ CFR TW/ 1kt (wed)
+ Cont/ US/ 80:20/ $237/ CFR TW/ 1kt (tue)
+ Cont/ JP/ Shindachi/ $282/ CFR JKT/ 0.5kt (mon)

Offers
+ Bulk/ JP/ H2/ $260-$262/ CFR s.VN
+ Bulk/ JP/ H1:H2/ $260/ CFR TW
+ Bulk/ US/ 80:20/ $262/ CFR s.VN
+ Bulk/ US/ Shred/ $267/ CFR s.VN
+ Bulk/ US/ PNS/ $272/ CFR s.VN
+ Cont/ C.Ame/ 60:40/ $235/ CFR Thai
+ Cont/ US/ 80:20/ $240-$245/ CFR TW
+ Cont/ US/ Shred/ $260-$265/ CFR JKT
+ Cont/ Aus/ Shred/ $262/ CFR JKT
+ Cont/ NZ/ Shred/ $260/ CFR JKT
+ Cont/ UK/ PNS/ $285/ CFR JKT
+ Cont/ UK/ Bushl/ $290-$295/ CFR JKT
+ Cont/ Bra/ Bushl/ $299/ CFR JKT

Bids
+ Bulk/ JP/ H2/ $240-247/ CFR s.VN
+ Cont/ US/ 80:20/ $237-$238/ CFR TW

◆ 국내 철강 시장 : 약세국면 지속

1. 한국향 오퍼 (CFR 기준)

*. 본계강철 12월 선적분 - 열연코일 : 468달러 15달러 하락 - 산세코일 : 508달러 15달러 하락 - 냉연코일 : 513달러 15달러 하락 (1월 선적분) - 아연도코일 : 583달러 10달러 하락 (달러환율 : 1170.00원)

- 아시아 수입 가격은 열연과 철근 모두 420달러를 조금 웃도는 수준.
  지난주 저점 분위기가 조성. 9월부터 50~60달러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예상되고 있음

- 후판은 중국산 오퍼 가격이 FOB 톤당 450~460달러대. 지난주 한국향 오퍼는 확인되지 않았음.
  수요는 부진하다는 평가가 주류.

* 한국 후판메이커의 동남아 수출 오퍼는 440달러대에서 이뤄지고 있음.
  지난번 포스코가 열연을 440달러에 오퍼한 사실과 비슷한 배경.
  동남아 시장에 베트남 하띤스틸이나 특히 인도 러시아산이 저가로 출몰하면서 약세장을 견인.

2. 국내 유통가격 약세 지속

1) 포스코산 수입대응재(GS)

- 열연 : 65만원
- 후판 : 65만원
  ※ 중국의 오퍼 가격 하락(지난주 15달러)으로 하락장은 계속될 것이란 의견 주류
  ※ 본계의 열연 오퍼 가격을 원화로 하면 55만원. 2급 밀(mill)들은 430~440달러로 아직 하락 압력이 큰 상황. 원화 가격으로는 50만원 초반 대 형성되면서 이는 국내 시장에 단계적으로 반영될 전망

2) 철근

- 국산 : 59.5만원~60만원. * 사실상 60만원선 아래로 떨어진 상황
- 중국산 : 56.5만원~57만원 * 낮은 가격대로 계속 수렴 중.

*. 용강의 오퍼 가격(470달러)에 대량 성약될 것이란 예상이 빗나감. 약 2만톤 정도.
  현재 수요부진 및 하락지속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평가.

3) 앵글 채널

- 국산 : 75만원
- 수입산 앵글 62만원 수입산 채널 64만원

* 앵글 채널도 하락 지속, 하락 폭은 철근보다 작음.
  지난주 성차이 오퍼 가격은 앵글 450달러/채널 460달러로 보합 유지

4) 형강

- 국산 : 75만원
- 포스코 베트남 : 73만원
- 바레인/일본 : 71만원
- 중국산 : 69만원

* 형강메이커들의 가격 인상 결정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음.
  다만 철근과 달리 추가적인 하락은 없었음.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10.23 기준)

품목	거래소	인도월	단위	가격	등락폭	등락율	주기
두바이유	싱가포르(FOB)	현물	USD/bbl	61.04	▲1.37	2.3	일간
액화천연가스	한국 수입가(CIF)	현물	USD/ton	509.78	▲30.5	6.36	월간
전력용 연료탄 (6,300kcal/kg)	호주뉴캐슬(FOB)	현물	USD/ton	64.33	▼1.94	-1.44	주간
고철 생철	한국 서울(도매가)	현물	KRW/ton	295,000	▼40,000	-11.94	월간
철광석 Fines	중국(수입가 CFR)	현물	USD/ton	87.18	▲0.5	0.58	일간
열연코일 3.0x4x8mm	한국(도매가)	현물	KRW/ton	713,200	-	-	월간
제철용 원료탄 Hard	동호주 항구(FOB)	현물	USD/ton	152.4	-	-	일간
전기동	LME	현물	USD/ton	5,869.0	▲96	1.66	일간
알루미늄	LME	현물	USD/ton	1,715.0	▲3	0.18	일간
니켈	LME	현물	USD/ton	16,950	▲555	3.39	일간
아연	LME	현물	USD/ton	2,518.5	▲8.5	0.34	일간
납	LME	현물	USD/ton	2,242.0	▲6	0.27	일간

◆ 중국 철강 시황 : 국경절 이후 약세 기조 지속

1. 상해선물거래소 25일 기준 열연 철근 거래 가격(2020년 1월 인도분)

- 열연 : 3360위안 일주일 60위안↑
- 철근 : 3407위안 일주일 34위안↑

→ 열연 가격이 최장(4일) 연속(22~25일) 상승. 철근도 23일 제외 모두 상승
상승폭은 제한적이나 저점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목됨.

2. 상해 내수 가격 동향 (10.25 기준)

- 열연 3600위안 철근 3670위안
- 전주 대비 동가 유지

3. 수출입 가격(아시아 수입 기준)

- 열연 CFR 톤당 419달러 철근 423달러
- 전주 대비 3달러 1달러씩 상승 **"장기간 하락세 스톱'**

4. 중국 유통재고 (25일 기준) - (마이스틸 집계)

- 철근 594만톤 열연 220만톤 선재 149만톤 후판 104만톤
- 9월 말 대비 철근 108만톤↓ 열연 20만톤↓ 선재 4만톤↓ 후판 2만톤↑
- 일주일 철근 46만톤↓ 열연 18만톤↓ 선재 12만톤↓ 후판 1만톤↑

※ 재고조정 가속화, 가격 저점 상승기반 마련에 주목

<LME>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여전히 시장에 존재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엇갈린 경제지표로 인하여 주요국 증시들은 하락. 미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는 긍정적으로 발표되었지만, 주택관련 지표가 부진한 수치를 보이면서 경기 우려가 커지는 모습. 칠레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해야 할 것임.

25일 전기동(Copper)은 강보합세 모습을 연출. 칠레의 Copper 광산인 Codelco가 하루 동안의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Copper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소폭 줄어듦.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 칠레 파업 등 대내외적인 이슈들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가격 움직임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니켈(Nickel)의 경우는 파푸아 뉴기니 정부가 폐기물 유출 후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Ramu 플랜트에 폐쇄명령을 내리면서 상승폭을 넓히는 하루.

금(Gold) 가격은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 및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으며 상승하는 하루.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상승하면 온스당 $1,500을 돌파하는 하루.

<MARKET NEWS>

파푸아 뉴기니, 中 소유 Ramu 니켈 플랜트 폐쇄 명령 (Reuters)

현지 당국 발표에 따르면, 파푸아 뉴기니 정부가 6주전에 내린 미상의 시정조치(unspecified remedial actions)의 未이행을 이유로 MCC(Metallurgical Corporation of China)社가 소유한 Ramu 니켈 플랜트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이 조치는 지난 8月 슬러리(slurry) 유출로 인해 Basamuk灣에 발생한 적조현상과 관련된 사항이며, 이에 社측은 여러 법적인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혀.

印尼, 자국 내 니켈鑛 최저가 관련 규정 개정 예정 (Reuters)

현지 당국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제련업체들이 정부의 벤치마크 가격을 확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니켈鑛 최저가(floor price) 관련 규정을 내년 1月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러한 움직임은 자국 내 제련업체들에 의한 광석가격 하락 압력에 대해 광산업체들이 정부에 불만을 제기해 온 것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벤치마크가격이 원광거래에 있어서 최저가로 이용될 것이라고.

칠레 Codelco社 하루 파업 종료 후 정상운영 재개 (Reuters)

회사 발표에 따르면, 칠레 Codelco社 노조가 전국 시위사태에 동조하는 하루 파업을 종료하고 정상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혀. 한편, 전국적으로 산재한 대규모 구리광산들은 이번 주 들어 전국적으로 시위가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영향이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印尼 Antam社 니켈鑛 수출 쿼터 33만톤 증가 예정 (Reuters)

현지 당국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광업부가 Antam社의 니켈鑛 수출 쿼터를 30만톤 가량 늘리도록 권유했다고 밝혀. 이를 통해 무역부는 12月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수출 쿼터를 허가할 수 있게 돼. 인도네시아는 내년 1月부터 未가공 광석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

LME 비철금속 OFFCIAL Prices (단위: USD/Metric Tons)

	금일				금월평균		전월평균	
	CASH (현물)		3M (3개월)					
	BID	ASK	BID	ASK	CASH	3M	CASH	3M
Copper	5,868.00	5,869.00	5,886.00	5,887.00	5,707.94	5,739.19	5,745.48	5,775.12
Aluminum	1,713.00	1,715.00	1,722.00	1,724.00	1,714.94	1,724.56	1,749.60	1,776.76
Zinc	2,518.00	2,518.50	2,485.00	2,486.00	2,413.06	2,381.97	2,319.64	2,309.05
Lead	2,240.00	2,242.00	2,223.00	2,223.50	2,168.33	2,164.39	2,070.86	2,076.88
Nickel	16,945.00	16,950.00	16,930.00	16,970.00	17,201.39	17,092.78	17,673.10	17,562.86
Tin	16,675.00	16,700.00	16,700.00	16,750.00	16,560.83	16,590.00	16,839.76	16,834.05

자료: Reuters,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

LME 비철금속 Evening Valuation (종가) (단위: USD/Metric Tons)

	CASH	3MTHS	NOV19	DEC19	JAN20	FEB20	MAR20	APR20
Copper	5,863.50	5,880.00	5,870.00	5,878.00	5,882.50	5,887.50	5,893.50	5,898.50
Aluminum	1,716.00	1,724.00	1,727.50	1,733.50	1,723.00	1,732.50	1,741.00	1,748.50
Zinc	2,532.25	2,491.00	2,534.00	2,515.00	2,500.00	2,485.50	2,472.50	2,464.00
Lead	2,245.50	2,226.00	2,239.50	2,233.50	2,230.00	2,228.50	2,228.75	2,229.00
Nickel	16,847.00	16,860.00	16,864.00	16,869.00	16,868.00	16,855.00	16,843.00	16,836.00
Tin	16,740.00	16,775.00	16,765.00	16,780.00	16,780.00	16,770.00	16,765.00	16,760.00

자료: Reuters,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

LME 비철금속 재고 (단위: Metric Tons)

	금일 재고동향					재고 상세내역		
	전일 재고	입고 (IN)	출고 (OUT)	금일 재고	전일 대비	ON WRT	CXL WRT	CXL Chg
Copper	269,525	0	4,275	265,250	-4,275	148,600	116,650	5,725
Aluminum	970,425	125	2,025	968,525	-1,900	791,775	176,750	-1,125
Zinc	59,725	0	600	59,125	-600	35,125	24,000	-600
Lead	69,300	0	50	69,250	-50	66,250	3,000	-50
Nickel	83,694	300	4,194	79,800	-3,894	30,186	49,614	-4,170
Tin	6,685	0	20	6,665	-20	5,770	895	210

자료: REUTERS,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철강 가격 상승 전망 관련 긍정적 팩트

1. 중국의 철광석 재고는 낮은 수준이다.

- 25일 기준 45개 항구의 수입 철광석 재고는 1억2800만톤
- 6월부터 소폭의 증가세 : 6, 7월 1억1600만톤 8, 9월 1억2100만톤 1억2300만톤
- 작년 10월 1억4500만톤보다 1700만톤 적은 상황
- 겨울철감산 완화와 고품위 광석 수요는 철광석 수요견인 요인

2. 중국 철강사 메이커의 원가압박은 상당한 수준

- 중견 밀은 적자를 오가는 수준의 판매,
- 열연 420~430달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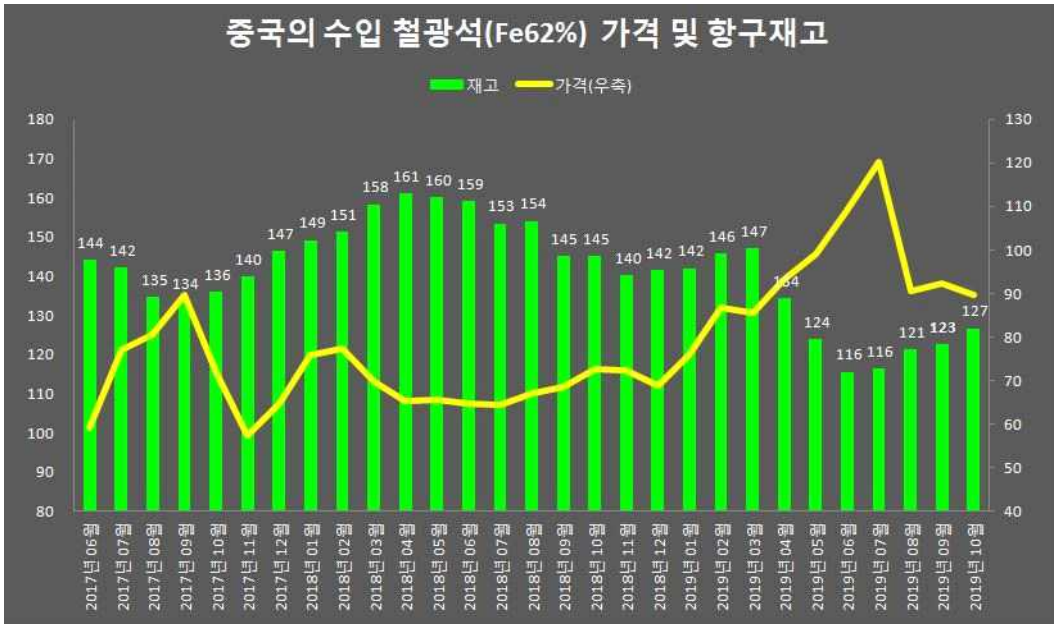
* 쇳물원가 10/1~25일 기준, 275달러(철광석 강점결탄 단순배합비 기준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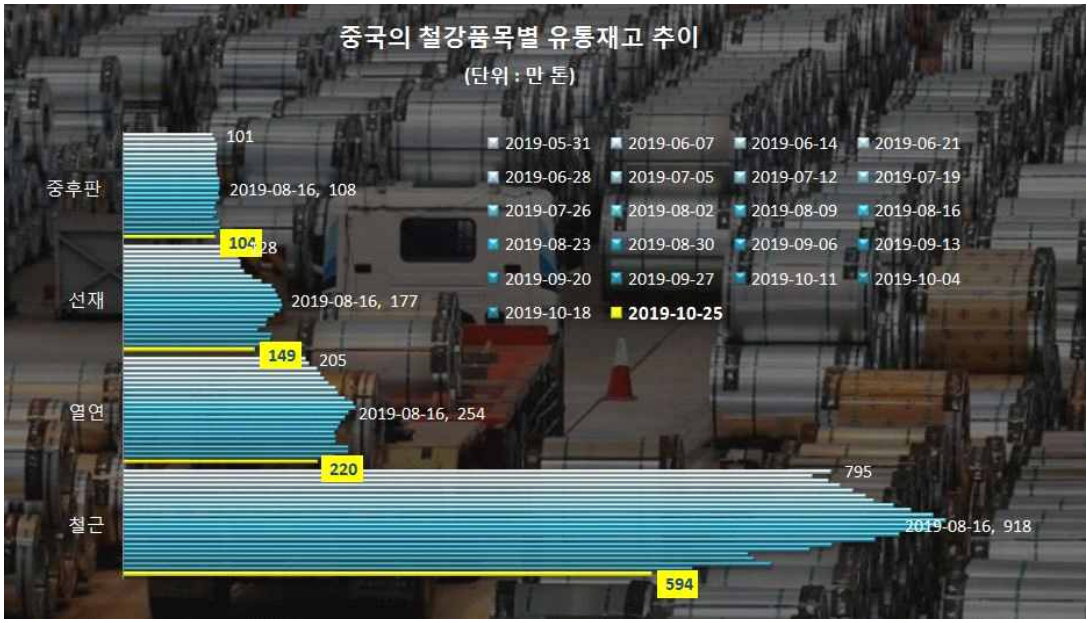
열연 원가는 430~440달러로 추산.

- 4분기 원가부담은 지속, 포스코 역시 4분기(철광석 95달러 예측)는 3분기의 부담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 원가 상승 및 철강사 원가부담은 가격지지 요인

3. 중국 철강재 유통재고는 급격히 줄고 있다

- 25일 기준 철근 유통재고는 594만톤(마이스틸 집계 기준)
- 올해 1월(최저 4일 490만톤) 이후 가장 적은 양
- 겨울철 재고조정은 상당히 진전 : 8월 924만톤에서 거의 반토막
- 연말 연초 재고는 타이트해질 것으로 판단, 과거 추세와 같이 연초 강세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음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1) 업계 뉴스

- 세계 철강업계·국가 GFSEC(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 글로벌철강포럼) 연장 공동성명…중국 불참
- 포스코인터내셔널 "STS TMC 후판가공 사업 분할“
- 철강협회, 고부가 금속소재 양성사업 성과 및 취업 설명회
- KG동부제철, 동부인천스틸 합병 취소 '주주반대로’
- 최정우 포스코 회장,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 방문...2020년 준공 예정
- 한국철강 단조사업 철수...'40년' 역사 속으로
- 청산강철-길산그룹 합작투자 유효기간 연장
- KG동부제철 곽재선 회장, 해외 세일즈 경영 본격 시동
- 해외 : 3분기 글로벌 조강량 14억톤 육박...韓 감소세 '전환', 발레 철광석 생산량 하향 조정...광미댐 일시 폐쇄 영향, 일본 9월 철강 수출 14% 증가 304만톤, 중 사강 철근 가격 인하…인상 기조서 전환, 타타스틸 유럽 철강사업 인력감축 돌입, 중 한국향 판재류 오퍼가격 큰 폭 인하, 판매 증대 나선 중국…재고 급감 가격 연중 ‘최저’, 아시아 열연價 450달러대 하락 ‘진정’…베 FHS 가격유지, 일 JFE스틸 ‘Data Scientist’ 2020년까지 350명 확보

2) 수요/연관 뉴스

- 르노삼성자동차, 국내생산 '트위지' 첫 수출 선적4
- 현대건설 3분기누적 매출액 연결기준 12조6473억원, 영업이익 6895억원 전년 比 3.1%, 1.8% 증가
-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3785억원…전년比 31%↑, 기아차 3분기 영업익 2915억원…전년比 148.5%↑
- 군산시의회, 현대중공업에 군산조선소 해법 촉구
- 르노삼성, 닛산 캐시카이 위탁생산 무산…내년 생산절벽 우려
- 울산 조선업체 협력사, ‘주 52시간 확대 시행 폐지’ 국민청원
- 국가산단 생산 12% 급감…가동률도 80% 이하
- 韓 친환경차 수출 올들어 42% 증가...소형 SUV 11만대

3) 경제/산업 뉴스

- 25일 환율 마감 : 원/달러 1173.0원 (전일 대비 ↑0.1원) 원/100엔 1079.46원(↓0.61원)
- 9월 수출물량지수 전년동월대비 2.1% 하락, 수입물량지수 1.6% 상승
- 성윤모 산업부 장관 “韓 수출 10월 저점…연말에 반등할 것”
- 한국은행 3분기 경제성장률 0.4%…건설투자 5.2% 감소
- 3분기 GDP 전분기 대비 0.4% 성장 · GDI 0.1% 증가
- 일본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8.5...전월 대비 0.4p 하락
- 9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1% 상승(전년동월대비 0.7% 하락)
- IMF, 올해 세계 성장률 3.2%에서 3.0%…한국 성장률 전망 2.6%에서 2.0%로 하향 조정

● 주요 경제지표 (10. 25. 17시30분 현재, 자료 : 기획재정부)

[환율]	'17말	'18말	'19.9말	10.23	10.24	10.25	전일비	18말비
₩/U$	1,070.50	1,115.70	1,196.20	1,172.40	1,172.90	1,173.00	0.01	5.14
선물환(NDF,1월물)	1,070.00	1,114.90	1,195.50	1,171.70	1,172.30	1,172.30	0	5.15
₩/CNY	163.9	162.79	167.55	165.75	165.89	165.84	△0.03	1.87
₩/Y100	949.28	1,008.86	1,109.54	1,081.85	1,080.22	1,079.61	△0.06	7.01
Y/U$	112.77	110.59	107.81	108.37	108.58	108.65	0.06	△1.75
U$/EUR	1.1927	1.1455	1.0935	1.1123	1.1133	1.1108	△0.22	△3.03
CNY/U$	6.5426	6.8522	7.1255	7.083	7.0696	7.067	△0.04	3.13

* '18년 평균 환율: (₩/U$) 1100.6원, (₩/￥100) 992.6원

* '19년 평균 환율('19.1.1~현재): (₩/U$) 1164.8원, (₩/￥100) 1069.7원, 3시 30분 기준

[유가]	'17말	'18말	'19.9말	10.22	10.23	10.24	전일비	18말비
Dubai ($/배럴)	64.33	52.86	60.94	58.95	59.67	61.04	2.30%	15.47%
WTI 선물 ($/배럴)	60.42	45.33	54.07	54.16	55.97	56.23	0.46%	24.05%

* '18년 평균 유가: (Dubai) 69.66$, (WTI 선물) 64.89$

* '19년 평균 유가('19.1.1~현재) (Dubai): 63.61$, (WTI 선물): 56.78$

[주가]	'17말	'18말	'19.9말	10.23	10.24	10.25	전일비	18말비
KOSPI	2,467.49	2,041.04	2,063.05	2,080.62	2,085.66	2,087.89	0.11%	2.30%
거래대금 (억원, 일평균)	42,744	41,207	34,892	48,110	51,108	52,088	1.92%	-
KOSDAQ	798.42	675.65	621.76	658.98	658.75	652.37	△0.97%	△3.45%
외국인순매수(억원,기간중*)	1,409	2,730	△534	2,484	566	△7	△101	-

* 기간중: '17말('17.1.1~12.31), '18말('18.1.1~12.31)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5. 금주의 자료

1) 2020년 미국 경제 전망과 5대 이슈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19.10.18)

- 미국 경제는 124개월째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경기 후퇴(Recession)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개인소비, 정부지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고정투자, 수출의 부진을 상쇄하고 있긴 하나 최근 제조업 부진이 나타나면서 경기침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음.
- 이로 인해 장단기 금리 차로 산출된 향후 1년 뒤 경기침체 확률은 30%대 중반 수준으로 최근 큰 폭으로 상승했음. 본 보고서는 부문별로 미국 경제 실물 지표를 점검하고, 2020년 미국 경제 전망과 이슈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바로가기 : http://hri.co.kr/storage/newReView.asp

2) 주요 신흥국 경제 전망에 대한 해외시각 (출처 : 국제금융센터, 19.10.23)

- 금년 신흥국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확산,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수출, 생산 등 경제지표 전반이 부진하면서 경기 하향세가 뚜렷
- 미·중 무역갈등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관들이 내년 신흥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은 고무적이나, 국가별로 산업 구조조정과 정책대응 능력 및 의지 등에 따라 경제전망도 차별화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바로가기 :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3&intSection2=7&intReportID=46125#

3) **일본의 '근로시간 제도 개혁' 동향과 시사점 (출처 : 대한상의 브리프&인포, 19.10.28)**

-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활용을 보다 유연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번 호는 일본의 2018년 근로시간 개혁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았음.

*. 바로가기 :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NewsBriefDetail.asp?SEQ_NO_C040=2188

4) 성장률 1%대 가능성 상승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19.10.24)

- 2019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4%를 기록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다면 1970년 이후 4번째이며 과거의 고성장 대비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과거처럼 단기간에 가해진 경제 충격 때문이 아닌 최근과 같은 저성장 구간에서 발생하는 경제성장률 1%대의 의미를 알아보고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바로가기 : http://hri.co.kr/storage/newReView.asp